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생활권은 행정구역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한 지점에서 접근 가능한 인구·주택·사업체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나 개인이 별도 GIS 소프트웨어 없이 이 차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 사례는 SGIS 생활권역통계지도만으로 대전시청역 인근의 차량 이동권을 재현하고, 일상 공간 탐색과 입지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주의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정 정책·사업의 효과를 입증하려는 분석이 아니라, 공개 서비스의 실제 활용 절차와 해석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분석 질문 : 행정동 이름 대신 '차량으로 10분 안에 닿는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인구·생활 기반이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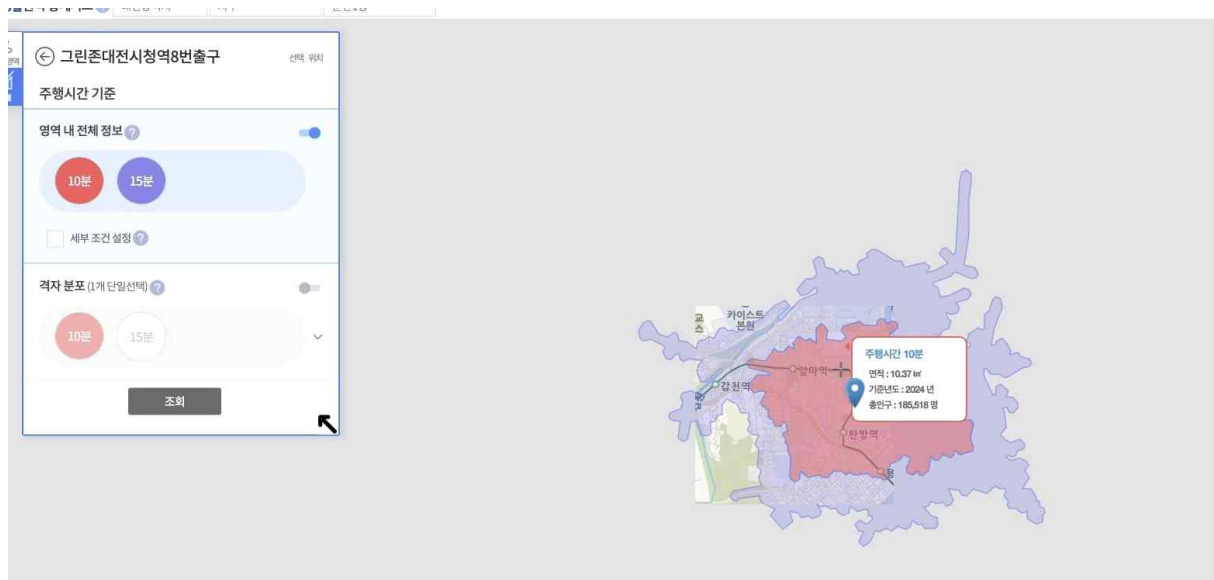


그림 1 SGIS 생활권역통계지도 화면 - 기준점 '그린존대전시청역8번출구', 차량 주행시간 10분 (2026-08-31 캡처)

분석 면적	총인구	기준
10.37km ²	185,518명	2024년 · 100m 격자

□ 추진과정

○ 화면에서 수치까지

1. SGIS의 ‘생활권역통계지도’를 열고 지역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으로 설정했다.
2. 검색 결과에서 역명 자체가 아니라 공개 지점명 ‘그린존대전시청역 8번 출구’를 기준점으로 선택했다.
3. 접근 방식은 차량 주행시간, 시간은 10분, 격자는 100m, 기준연도는 2024년으로 고정했다.
4. 인구/가구/주택과 사업체/종사자 탭을 차례로 확인하고 화면에 표시된 값만 기록했다.
5. 총량·구성·상위 업종을 구분해 정리하고, 서비스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인과관계나 정책효과는 주장하지 않았다.

○ 설정값과 재현조건

서비스

기준점

접근 방식

공간 단위

통계 기준연도

캡처일

SGIS 생활권역통계지도

그린존대전시청역8번출구

차량 주행시간 10분

100m 격자 기반

인구·가구·주택 2024년 / 사업체·종사자 2024년

2026-08-31 KST



그림 2 조건 설정과 결과 패킷이 함께 보이는 전체 화면. 지도에는 10분 15분 영역이 보이지만 본 보고서의 수치 분석은 선택된 10분 결과만 사용했다.

중요한 범위 한정 이 결과는 도보권·대중교통권이 아니라 차량 주행시간 10분 생활권이다. 또한 기준점은 역건물이 아니라 공개 지점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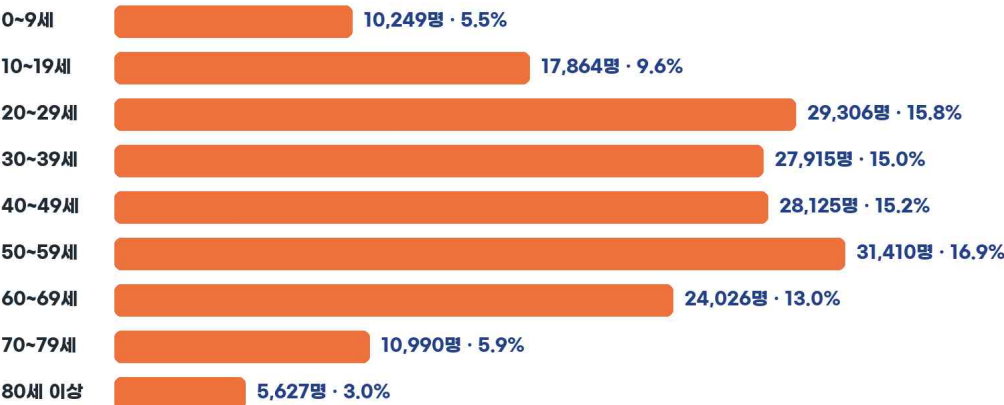
□ 추진내용

○ 활용분야 및 주요내용 : 인구·가구·주택

활용분야는 생활권역통계지도이며, 생활권 안의 규모와 구성 파악에 초점을 맞췄다. 화면의 총인구는 185,518명이며 20~59세 네 연령집단의 합계는 116,756명이다. 60세 이상은 40,643명으로 총인구 기준 약 21.9%다. 이 비율은 공개 화면값을 재합산한 파생값이다.

차량 10분 생활권의 연령별 인구

SGIS 화면 표시값 · 기준연도 2024



※ 연령별 표시값 합계는 화면 총인구보다 6명 적어 임의 보정하지 않음

그림 3 SGIS 화면의 연령별 인구와 표시 비율을 재배열한 그래프

항목	값	해석 범위
총인구	185,518명	생활권 내 화면 총량
총가구	89,519가구	생활권 내 화면 총량
친족가구	47,272가구	화면 분류값
주택 / 아파트	59,083호 / 50,659호	아파트가 주택의 약 85.7%*

데이터 정합성 메모 연령별 9개 표시값의 합계는 185,512명으로 화면 총인구 185,518명보다 6명 적다. 원인을 추정하거나 임의 보정하지 않고 원값을 병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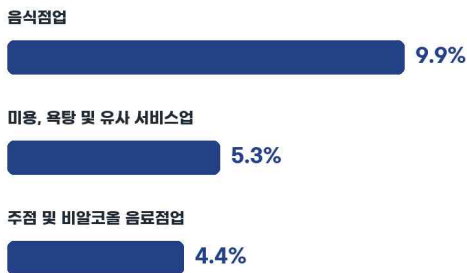
○ 생활기반을 읽는 두 번째 축 - 사업체 · 종사자

같은 10분 생활권에서 사업체는 25,164개, 종사자는 122,221명으로 표시됐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서로 다른 지표이므로 비율을 직접 비교하거나 ‘수요’로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각 탭이 보여주는 상위 업종을 별도로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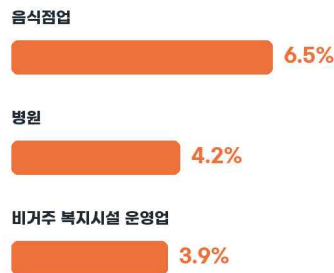
사업체·종사자 상위 업종

SGIS 2024년 화면 표시 비율

사업체



종사자



※ 업종 비율은 SGIS 화면의 각 탭 상위 항목 표시값이며 원안·수요를 뜻하지 않음

그림 4 각 탭의 상위 업종 표시값. 사업체와 종사자의 분모가 다르므로 막대 길이는 같은 그룹 안에서만 읽어야 한다.

구분	항목	화면 비율
사업체	음식점업	9.9%
사업체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3%
사업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4.4%
종사자	음식점업	6.5%
종사자	병원	4.2%
종사자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9%

○ 활용가능한 질문

일상 입지 검토

행정동 밖까지 포함한 접근 가능한 인구·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서비스 기획

연령구성이 한쪽에 치우치는가, 여러 세대가 함께 존재하는가?

후속 조사 설계

상위 업종 화면값을 바탕으로 어떤 현장조사·추가데이터가 필요한가?

□ 추진성과

첫째, 별도 GIS 프로그램 없이도 하나의 공개 서비스 안에서 기준점→이동시간→격자→통계 결과를 연결하는 조회·정리 흐름을 구성했다. 둘째, 동일한 생활권 설정에서 인구·가구·주택·사업체·종사자 각 통계 탭을 묶어 읽는 요약표와 시각자료를 만들었다. 셋째, 차량권/도보권 구분, 기준점 명칭, 기준연도, 합계 차이처럼 재현과 해석에 중요한 제한조건을 명시했다.

○ 재현에 필요한 조건을 기록한 5단계 활용법

1. 질문을 먼저 쓴다: ‘어디에서 어떤 이동수단으로 몇 분 안에 무엇을 알고 싶은가?’
2. 지도에서 기준점을 선택하고 화면에 표시된 지점명을 그대로 기록한다.
3. 이동수단·시간·격자·기준연도를 고정한 뒤 조회한다.
4. 총량, 구성, 상위 항목을 분리해 기록하고 화면 캡처를 남긴다.
5. SGIS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인과·수요·정책효과는 별도 근거 없이는 주장하지 않는다.

○ 한계와 후속 과제

- 단일 기준점·단일 시간 조건의 사례이므로 대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 차량 10분 결과이며 보행·대중교통 접근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 지도 경로망과 격자 집계 방식에 따라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 연령별 합계와 총인구의 6명 차이는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보정하지 않았다.
- 실제 입지 결정 전에는 현장조사, 최신 교통상황, 비용·경쟁·안전 데이터를 추가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소외된 지방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정책 설계 및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음.